

# “해수부 없이 여수엑스포 잘 치르겠나”

빈센테 곤잘레스 로세르탈레스 세계박람회 기구(BIE) 사무총장은 30일 “여수세계엑스포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폐지돼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날 한국을 찾은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 국회 여수엑스포 유치특위 소속의 이인기·김재경 의원(이상 한나라당) 김성곤·주승용 의원(이상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는 여수엑스포를 통해 국제 해양정책에 공헌하기로 약속했는데 해당 부처가 폐지돼 우려스럽다”며 “여수엑스포는 해양 환경, 정

##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 우려 표명 준비기간 매우 촉박… 민·관 협력 필요

책, 연안 등이 상호 보완돼 추진돼야 하는데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런 기능이 분리돼 과연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또 “이명박 새 정부가 여수엑스포를 잘 치를 수 있느냐”며 또다시 우려감을 표시한 뒤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박람회장을 만드는 것은 물론 도로 철도 숙박시설 등 인프라를 건설해야 하고 참가국들의 국가관을 건

설하는 것을 지원해야 하며, 국내외 홍보 캠페인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 할 일이 많기 때문에 2012년까지 4년은 매우 짧다”며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준비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했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이어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잊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되 회원국들의 참가를 늘리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엑스포는 모든 부문이 협력해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민관분

야와 공공분야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해양문제 등이 주요한 사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는 매우 시기적 절차다”면서 “엑스포 개최까지 1년에 1~2년 정도는 한국이나 런던, 뉴욕 등 해외에서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개최해 주제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정동구 현대·기아차 회장, 박준영 전남지사를 만났으며 31일에는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오현석 여수시장을 각각 면담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방노동청(청장 권영순)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개청식이 30일 광주시 북구 북동 신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에 참가한 노민기 노동부 차관, 강기정 국회의원, 이신원 한국노총 전라남도본부 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고용지원센터 개청

광주고용지원센터 개청식이 30일 광주시 북구 북동 신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에 참가한 노민기 노동부 차관, 강기정 국회의원, 이신원 한국노총 전라남도본부 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타르 피해 어민 설 전 생계비 지원

### 영광·무안·신안 168억원 배정… 가구당 최고 600만원

타르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어민들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이 빠르면 31일부터 지급된다.

전남도는 정부의 교부결정이 31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결정과 동시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광·무안·신안군에 생계자금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3개 군 부군수와 담당과장, 어민 대표 등과의 6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지금 대상업종 및 대상자와 피해 지역별·유형별·정도별 가중치 적용 등의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읍·면에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피해 가구의 경우 각 시·군이 이를 취합·검토하고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확인한 뒤 곧바로 통장에 입금하게 된다.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생계자금은 모두 168억원으로 영광 3천151가구(573천만원), 무안 1천566가구(31억6천800만원), 신안 3천683가구(79억200만원) 등 모두 8천400가구에 지급될 예정이다.

전남도가 마련한 지급 기준에 따라 김 암식업의 경우 평균 400만원으로 피해가 심한 가구에는 최고 600만원

까지 지원되며 김 가공업 가구 평균 500만원, 어선어업 가구 평균 300만원, 맨손·마을·굴양식 어업 가구 평균 170만원, 해조류·가두리·종묘생산업·횟집 등 기타 가구 평균 2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그러나 일부 피해 규모에 대해 의견을 보이고 있는 어민들의 경우 피해 합의 및 접수가 늦어질 것으로 보여 실 이전 지급이 어려울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 생계자금에 대한 정부의 교부 결정만 내려지면 지원금이 도에 송금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곧바로 도금고에서 각 시·군에 자금을 내려보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문화수도 범시민 대책위 구성

### 조성위 폐지 공동 대응

광주 지역 정·관계, 시민·사회단체, 대학 등이 새 정부의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위 폐지방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광주·전남문화연대를 비롯해 광주 YMCA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후 실무간사단 회의를 갖고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 저지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

성키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오는 1일 오후 광주YMCA 무진관에서 ‘특별법 개정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범시민대책위 구성을 위한 절차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 방철호 대표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특별법으로 설치된 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폐지방침과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역시·자치구 갈등, 구간 재정 격차 해소

### 구의회 없는 준자치구 모델 도입해야

#### 조영택 문화수도 조성위원장



유형이다.

대신 특별·광역시 위원들이 구의 현안을 다루는 ‘구정협의회원’을 겸임도록 함으로써 광역시의 행정에 구의 의견을 유기적,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준자치구 모형’은 구의원을 별도 선출하지 않음으로써 선거비용이 절약되고, 시·구간 공동발전은 물론 대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이 논문에서 현행 자치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민선단체장 중심 준자치구 모형’은 구청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모델로 뉴욕 등 해외 주요 선진 도시들이 채택하고 있는 자치

조영택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은 30일 ‘대도시 자치구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라는 한강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조 위원장이 논문에서 현행 자치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민선단체장 중심 준자치구 모형’은 구청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모델로 뉴욕 등 해외 주요 선진 도시들이 채택하고 있는 자치

조 위원장은 이 논문으로 오는 2월 22일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쌀 값 목표 향후 5년 17만원선 고정

정부가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일부를 현금으로 매어줄 때 기준으로 삼는 ‘쌀 목표가격’이 올해부터 5년동안 떨어지지 않고 17만원선에서 고정된다.

30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쌀 목표가 5년 동결’을 상임위

안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kg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kg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kg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kg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kg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kg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kg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kg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kg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kg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kg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kg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kg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kg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kg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kg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kg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kg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kg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kg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p